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16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5.08(금)

램프사업부 일방적 매각 반대!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2026년 5월6일 14시, 김천 현대모비스 사내에서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일방적 매각 반대! 공동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금속노조 주최, 구미·경주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주지부 각 지회 상근자와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김천현대모비스지회 조합원, 유니투스 4개 지회 확대간부,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노동조건 후퇴에 맞서 매각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 의지를 다지기위해 마련됐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1월 OP모빌리티와

램프사업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자회사들의 단협조항을 무시한 채 매각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램프사업부 자회사 원청인 현대모비스는 매각과 관련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현장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먹튀를 일삼는 외투 자본의 문제와 더불어 직군과 업무가 달라도 고용이 흔들리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며 현대아이에이치엘 사무직 80여명, 현대모비스 연구직노동자 400여명이 금속노조에 가입 현장 조직화 흐름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더해서 4월 20일에는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김천현대모비스지회 양 지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확대간부 수련회에서는 매각 강행에 맞서 고용안정과 원청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그렇게 4월 27일부터 시작된 전면파업은 12일차에 들어서고 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현대모비스의 성장과 현재의 가치 역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매각과 구조조정 문제는 현대차그룹과 현대모비스 본사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희망퇴직과 위로금으로 현장을 흔들려 하겠지만 이번 투쟁은 현대모비스 구조조정의 신허탄인 만큼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며 “원청교섭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일배 금속노조 구미지부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지난해 합의 이후에도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장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매각 과정은 원청교섭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파업이 길어질수록 현장 불안도 커지지만 자본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싸움은 램프사업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니투스와 모트라스, 금속노조 전체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이번 램프사업부 매각 저지 투쟁은 자본의 일방적 매각 결정에 맞서 노동조합이 직접 개입하고 저지에 나선 역사적인 싸움”이라며 “매각 이후 조건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자체를 막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니투스 4개 지회의 무기한 전면파업 결정은 현장 공동 대응의 힘을 보여주는 결단”이라며 “현장의 단결과 공동파업으로 반드시 매각을 막아내고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 문제는 단순한 기업경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제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경주지부는 오는 5월 13일 서울 현대모비스 본사앞에서 램프사업부 매각을 막기위한 투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